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3. 12. 28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팩스 051) 797-4810

동향

2023.12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주요 동향	02
2. 국외 항만 주요 동향	14
3.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28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1 부산항 신항, 2-6단계 국산 하역장비 도입 계획
- 2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일대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추진 예정
- 3 울산항,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대상 세계 최초 STS방식 메탄을 병커링 성공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1 중국, 국제 해상 운송 지연 및 비용 급증
- 2 글로벌 '컨'선사, 수에즈 운하 및 홍해 항로 통행 중단
- 3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로 호주 주요 항만 봉쇄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1 컨테이너, '24년 선사 실적 악화 전망
- 2 석탄, '24년부터 세계 석탄 수요 감소 전망
- 3 고철, 철강 수요 둔화에 따라 자급률 상승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부산항만공사(BPA), 신항 2-6단계 국산 하역장비 도입 계획¹⁾

- BPA는 부산항 신항 서'컨' 2-6단계에 국산 항만하역장비 도입을 위한 제작·설치사업을 발주함
 - BPA는 지난 12월 8일, 총 2,800억 규모의 국산 하역장비인 컨테이너크레인 6기와 트랜스퍼크레인 34기의 제작 및 설치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게시함
 - 이번 국내 발주를 통해 정부의 국산기술 기반 스마트항만 조성 정책의 적극 이행 뿐만 아니라 국내 중공업 및 연관산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BPA는 부산항 신항 2-5단계에 이미 국산 컨테이너크레인 및 트랜스퍼크레인을 제작 설치한 바 있음
 - 2-5단계에는 국산 컨테이너크레인 9기, 트랜스퍼트레인 46기를 도입하였으며 지난 10월 27일 자동화 장비 시연회 이후 안정적 개장을 위한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음
 - 2-5단계에 도입한 국산 하역장비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약 1조 원, 일자리 창출효과는 약 24,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② BPA, 체인포털에 배후단지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²⁾

- 지난 12월 4일, BPA는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와 부산항 체인포털(항만물류통합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번 협약은 체인포털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추진, 체인포털과 배후단지 입주기업 간 데이터 연계, 배후단지 이용 선사, 화주, 포워더, 운송사에 플랫폼 안내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까지 부산항 체인포털은 컨테이너 터미널 정보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며 항만배후단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지 않았음
 - 항만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배후단지 정보 연계 부족으로 선사의 공컨테이너 재고 관리 어려움 및 화물트럭의 장시간 대기 등 많은 비효율을 발생시킴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3.12.14.),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1241>(2023.12.15. 검색)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3.12.13.),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1218>(2023.12.15. 검색)

- » 향후 터미널과 내륙 배후단지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부산항 이용자들의 효율성 제고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④ 부산항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³⁾

- » BPA는 울산항만공사(UPA)와 “동남권 항만 친환경 선박연료 bunker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최근 국제해운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으로 LNG,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 증가에 따라 친환경 선박연료 bunker 인프라가 항만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
 - 양 PA는 부산항을 기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울산항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STS(Ship-to-Ship) 공급 방식을 통해 bunker 수요에 대응할 계획임
 - 또한, 친환경 선박연료 bunker의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bunker 선박과 실증에 참여하는 항만사업장에 항비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 역시 상호 협력하기로 함

3)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3.11.20.),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1109>(2023.12.15. 검색)

- » 한편, BPA는 해당 업무협약 사례를 글로벌 선사들의 bunker 유치 등 부산항 경쟁력을 홍보하는 마케팅 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인천항

① '24년 인천남항 항만배후부지 일대에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추진 예정⁴⁾

- »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운영사업자와 사업 추진계약을 체결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이며 최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24년 상반기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면 '24년 하반기에 1단계 조성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존 중고차 수출단지의 원활한 이전을 통해 조성될 스마트 오토밸리는 안전사고 및 환경 오염 등의 방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음
-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은 인천항 중고차 수출물류기업, 특히 영세한 수출업체들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고차 수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② IPA, 주한 외국적선사대표협회(AFSRK) 대상 인천항 마케팅 설명회 개최⁵⁾

- » IPA는 지난 12월 8일 주한 외국적선사대표 협회(Association of Foreign Shipowners Representative in Korea, AFSRK)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함
- 코로나19로 4년 만에 개최된 AFSRK 대상 설명회에는 MSC, CMA-CGM 등 11개사가 참여함
- IPA는 각 선사의 신규 서비스 개설 검토에 필요한 컨테이너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 특송화물 처리 여건, 배후단지 개발계획 등 최신정보와 자료들을 설명함
- '23년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신규항로 서비스 개설과 중고차 수출로 역대 최대물동량인 345만 TEU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편, IPA는 외국적 컨테이너선사의 지속적인 인천 기항과 신규항로 개설을 위해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임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3.12.21.),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6265&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 (2023.12.21.검색)

5) 인천시(2023.12.10.),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6124&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2> (2023.12.15.검색)



3) 여수·광양항

① 광양항, '23년도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급 완료⁶⁾

-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지난 12월 17일 광양항 물동량 창출을 위한 신규 항로 유치 선사 등에 '23년도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힘
- YGPA는 동남아 신규항로를 유치한 2개 선사를 대상으로 4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인센티브제도 운영을 통해 8개 신규항로를 유치해 현재 주당 82항차를 운영 중임
- 또한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을 대상으로 선박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 화물입출항료를 50% 감면하고 있으며, 광양항에 입항하는 대형선 대상 도선료를 차등 할인하고 있음
- » '23년도 광양항 인센티브 제도는 선사가 구·미주 신규항로를 유치할 경우 5억 원을 지급하고, 광양항 단독 기항시에는 20% 할증된 최대 6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 또한 물동량 증가 인센티브의 경우 기존 부합시 증가물량 1TEU당 2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부산항 대비 약 2배 높은 수준임
- 한편, YGPA는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통해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 종합항만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항로연계성 강화 및 신규 특화화물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② 자동차 화물,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110만 대 처리 전망⁷⁾

- » YGPA는 '23년도 광양항에서 처리하는 자동차 화물이 110만 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
- 여수광양항은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컨테이너 등 거의 모든 화종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최대의 종합항만임
- 자동차 화물은 부지를 많이 차지하고 자동차전용선(RoRo Ship) 또한 수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양항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임
- YGPA는 올해 현대글로벌비스, 유코카캐리어 등 자동차 메이저 선사와 자동차부두 운영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석 이전 및 부두 임시사용 승인 등 안정적인 자동차 수출입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20년 52만대를 처리했던 자동차 화물이 '23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110만 대로 전망됨

6) 광양시민신문(2023.12.17.), <https://www.gycitize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79>(2023.12.18. 검색)

7) 아시아투데이(2023.12.20.),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220010012392>(2023.12.21.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4) 울산항

①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세계 최초 STS 방식 메탄올 벙커링 성공⁸⁾

- »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에서 16,200TEU급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에 Ship to Ship(STS) 방식의 메탄올 벙커링을 성공했다고 밝힘
- 벙커링에 성공한 선박은 머스크(A.P.Moller-Maersk)사가 HD현대중공업에 발주한 18척의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중 첫 번째로 건조된 선박으로, 시운전 출항을 앞두고 1,000톤의 메탄올을 STS방식으로 공급받음
- 이번 벙커링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메탄올 STS 벙커링이며, 1만 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한 메탄올 STS 벙커링은 세계 최초임
- »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화 규제로 글로벌 해운선사를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하면서 국내외 항만은 신시장 선점을 위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음
- 최근 그린메탄올이 저·무탄소 선박연료로 각광받으면서 메탄올 추진선박 발주가 급증하고 있어 UPA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울산항에서 메탄올 벙커링 신사업을 위해 노력했으나, 국내에는 메탄올 벙커링 전용 선박이 없어 STS 벙커링을 수행이 어려웠음
-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메탄올 공급을 위해 해운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개정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메탄올을 연료로 공급하는 케미컬 수송선에 한해 '25년 12월 31일까지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업 겸업이 허용됨
- 이번 메탄올 STS 벙커링은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된 고시를 바탕으로 케미컬 수송선을 통해 이루어짐

8)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3.11.18.),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7780\(2023.12.15. 검색\)](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7780(2023.12.15. 검색))

초대형 컨테이너선 대상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초의 STS 방식 메탄올 벙커링



자료: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3.11.18.),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7780\(2023.12.15. 검색\)](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7780(2023.12.15.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② 해양수산부, 신항배후단지에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⁹⁾

- » 해양수산부는 울산 신항배후단지 24만 m² 규모 부지를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으로 지정함
- 지난 '20년,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의 집적화·특성화를 위해 「항만법」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하여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 현재까지 특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 신항의 '콜드체인 특화구역'(20년 6월), 인천 남항의 '전자상거래 특화구역'(20년 8월) 등 2곳이었음
- 해양수산부는 12월 6일, 연간 유류화물 처리량이 세계 3위 수준인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하고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 신항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24만 m² 규모로 지정함
- 이번 특화구역 지정으로 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을 기존의 에너지허브(LNG, 오일) 1단계 항만 터미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9) 울산신문(2023.12.06.),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17634>(2023.12.15. 검색)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위치도



자료: 울산신문(2023.12.06.),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17634>(2023.12.15.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평택시,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명명식 개최¹⁰⁾

» 평택시는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의 명명식을 지난 12일 개최하며 평택함이 제2의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힘

- 평택함은 영국에서 건조된 후 미국 해군에서 '72년 취역했던 구조함으로, '97년 4월 진해 해군사령부 해군부두에서 재취역하면서 '평택함'으로 명명됨
- 이후 평택함은 '07년 태안 기름유출 방재 작전, '10년 천안함 구조·인양 작전 및 추락 링스헬기 탐색 작전 등에 투입됐으며, '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함 중 가장 빨리 현장에 투입돼 실종자 구조 및 탐색 작전을 펼친 바 있음
- '16년 12월 퇴역한 이후 평택함은 이듬해 1월 평택시에 무상 대여 형식으로 인계됐으며, 평택시는 토론회 등을 거쳐 평택함을 해양안전체험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 현재 평택함은 서해대교 하부 친수공간에 이전돼 있으며, 이날 행사도 평택함에서 진행됨
- 명명식에서는 해양·재난·어린이 분야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되짚어 해양안전체험관의 필요성을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공유했으며, 현판식 및 함정 순시 등이 진행됨
- 한편,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에는 재난안전체험교육장, 국가자격증 상실시험장, 4D항법 체험관, 해군전시홍보관, 평택시홍보관 등의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24년 4월 정식 개장될 계획임

최석우 부연구위원

051-797-4777, schoi@kmi.re.kr

② 동방,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 활성화 위한 '포트세일즈' 개최¹¹⁾

» 동방은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이하, PNCT) 활성화와 신규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를 위해 선사, 화주 등 고객을 대상으로 포트세일즈를 개최했다고 밝힘

- PNCT는 '10년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개장해 '22년 기준 평택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31.8%를 처리하고 있음
- 아산국가산업단지 등 약 518개의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에는 물류, 제조 등 259개 이상의 주요 수출기업이 입주하고 있음
- 또한 고속도로, 철도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육상운송의 최적입지를 갖추고 있음

10) 평택시청 보도자료(2023.12.12.),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0403060000&bldx=295569&ptldx=90>(2023.12.14. 검색)

11) KLN 물류신문(2023.11.17.), <https://www.kl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177>(2023.12.14. 검색)

- 동방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통해 대중국 교역의 중추적인 항만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새로운 물류거점인 PNCT의 우수한 서비스와 경제적, 지리적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지난 13년간 함께한 고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함

최석우 부연구위원

051-797-4777, schoi@kmi.re.kr

6) 포항항

① 포항 영일만항 방파제 보강공사 준공¹²⁾

» 지난 10일, 영일만항의 항만시설 피해 및 배후지역 침수 예방, 정온수역 확보를 위해 '17년 11월부터 2,128억 원이 투입된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가 준공됨

- 이번 공사로 총 3,054m 구간의 북방파제 높이가 4.5~6.5m 높아졌으며, 파랑 에너지를 흡수하는 소파블록으로 보강됨
- 또한 510m 구간의 어항방파제도 높이가 2.9m 보강되어 배후지역 침수 방지기능이 강화되었으며, 방파제 상부 부지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친수공원으로 조성됨

1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12.11.),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4276&searchDeptName=&menuSeq=971&searchEndDate=&searchEtc1=&searchEtc2=&searchEtc3=&searchEtc4=&searchEtc5=&currentPageNo=1&searchSelect=title&searchStartDate=&recordCountPerPage=&bbsSeq=10&searchValue=%EC%98%81%EC%9D%BC%EB%A7%8C%ED%95%AD>(2023.12.14. 검색)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



자료: 해양수산부,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4276&searchDeptName=&menuSeq=971&searchEndDate=&searchEtc1=&searchEtc2=&searchEtc3=&searchEtc4=&searchEtc5=&currentPageNo=1&searchSelect=title&searchStartDate=&recordCountPerPage=&bbsSeq=10&searchValue=%EC%98%81%EC%9D%BC%EB%A7%8C%ED%95%AD> (2023.12.14.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7) 동해·묵호항

① 동해·삼척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프로젝트 확정¹³⁾

» 동해시와 삼척시는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동해 추암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삼척 호산 LNG인수기지까지의 반경 20km 구역을 수소 저장·운송 집적단지로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확정함

- '21년 8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약 2년간의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기획재정부의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을 통과함
- 총사업비는 국비 439억 원, 지방비 423억 원, 민자 2,315억 원 등 총 3,17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
- 동해시에는 GS동해전력이 조성한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내 31만 4,536㎡ 부지에 65개의 수소 관련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산업진흥센터 및 안전성 시험센터도 구축되어 기술역량 강화, 기술 검증, 사업화 촉진, 안전성 인증 등을 지원하게 됨
- 삼척시의 호산항 LNG 생산기지에는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가 설립되어, 강원권·수도권·중부권을 아우르는 미래 수소경제 공급 기반을 완성할 계획임
- 동해시는 '24년 예산 확보 후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며, 강원도와 삼척시, 강원테크노파크 등과 사업 추진방향을 협의 중임

13) 강원도민일보(2023.12.07.),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7706> (2023.12.10. 검색)

» 한편, 동해시는 수소 및 저탄소 녹색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동해신항 수소 전용 항만 지정,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등을 추진해 동해시를 청정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 동해시는 이번 예비타당성 통과로 동해항 배후지인 북평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수소항만, 수전해, 기회발전특구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역점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8) 목포항

① 목포항 수출입 창출 기반 필요¹⁴⁾

» 목포항 총 물동량은 광양항의 10분의 1 수준으로 목포항의 수출입 물동량을 늘리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목포항 전체 물동량 중 연안 화물이 70% 이상을 차지해 수출입 화물이 대부분인 광양항과 대조됨
- 지난해 목포항 물동량은 2,534만 톤으로 광양항 물동량 2억 6,940만 톤과 비교해 10분의 1에도 못 미쳤으며, 연안 화물이 1,858만 톤으로 전체 물동량의 73%를 차지함
- 그에 반해 수출입과 환적 등 외항 화물은 676만 톤으로 전체 물동량의 27%에 불과함
- 반면 광양항은 외항 화물이 2억 3,705만 톤으로 전체 물동량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안 화물은 3,234만 톤으로 12%의 비중을 차지함
- 목포항 물동량은 '13년 2,016만 톤으로 처음 2천만 톤을 넘은 후 최근 10년간 2,200만~2,500만 톤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정체 상태임
-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서남권에 수출입 화물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기반 확충이 급선무이고 연안 화물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힘

1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3.12.05.),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5051600054\(2023.12.14. 검색\)](https://www.yna.co.kr/view/AKR20231205051600054(2023.12.14. 검색))

최석우 부연구위원

051-797-4777, schoi@kmi.re.kr

9) 대산항

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청), 국제여객부두 접안시설 개선공사 착공¹⁵⁾¹⁶⁾

» 대산청은 크루즈선 취항 예정인 '24년 5월 전까지 20억 원을 투입하여 대산항 여객부두의 방충재 교체, 계선주 신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임

- 서산시는 지난 6월 롯데관광개발과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여객터미널 임시개장, 여객부두 보수·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서산을 출발해 일본과 대만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오는 11만 4천 톤급 크루즈선은 선체 길이가 290m로 대산항 국제여객부두인 1부두와 잡화부두인 2부두 동시 접안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두 선석의 방충재 형식이 상이하여 안전을 위해 여객부두의 방충재 20개소를 교체하고 계선주 7개소를 추가할 예정임

15) 뉴스1(2023.11.28.), [https://www.news1.kr/articles/5245049\(2023.12.15. 검색\)](https://www.news1.kr/articles/5245049(2023.12.15. 검색))

16) 충청타임즈(2023.11.28.), [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77263\(2023.12.15. 검색\)](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77263(2023.12.15.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0) 군산항

① 군산 새만금 자동차수출센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불발¹⁷⁾

» 군산시가 신산업으로 추진해오던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불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함

- 새만금 자동차수출센터는 현대조선소 군산공장 가동 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 대응 지역 활력 프로젝트사업으로 지정돼 추진되어 왔음
- 이후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21년 11월 착공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가 '23년 10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토지매입을 이행하지 못함
- 이에 따라 지난 11월 계약해지와 함께 대체 사업자에 대해 공모했으나 신청한 민간사업자 2곳이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불발됨
- 자동차수출센터는 약 1,600억 원을 투입되어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 19만 7,824㎡ 부지에 중고차 매집부터 통관 출고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금년 내로 자동차수출센터 조성 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투입 예정 금액 중 국비 275억 원은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무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17) 전라일보(2023.12.20.),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2201408001#c2b\(2023.12.21. 검색\)](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2201408001#c2b(2023.12.21. 검색))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11) 마산항

① 한·미, 마산항 포함 녹색해운항로 구축 검토¹⁸⁾

» 한·미 양국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해 부산항, 울산항, 마산항과 미국의 시애틀항, 타코마항, 애버렛항간의 화물 흐름, 재생연료 가용성 및 연료공급 인프라 등을 평가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함

- 지난 12월 1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양국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진행사항 및 녹색해운 목표 이행 현황에 대해 발표함
- 이번 사전 타당성 조사는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부산항과 미 서부 타코마항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 합의의 확장으로 사전 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라 그린 메탄올이나 그린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무탄소항로 구축 가능성이 제시됨

» 마산항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국제해운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한·미 양국은 '24년 상반기부터 경제적 및 규제적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이 계획은 '28년에 시범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협력과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음
- 정부는 이번 한·미 녹색해운항로 협력을 바탕으로 호주,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도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힘

18) 연합뉴스(2023.12.02.),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2026500030\(2023.12.15. 검색\)](https://www.yna.co.kr/view/AKR20231202026500030(2023.12.15.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23년 11월 수출 소폭 증가, 그러나 무역 부진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¹⁹⁾

- » 중국의 수출액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0.6% 감소함
- 국가별 수출입 교역을 살펴보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 유럽 연합 및 동남아국 가연합으로의 수출은 같은 기간 각각 14.5%, 7% 감소함
- 수입의 경우 미국과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EU에서의 수입은 소폭 증가함
- 품목별로 살펴보면 장난감, 전자제품, 자동차 수출이 증가한 반면 의류, 신발, 가구 등은 감소하였으며, 원유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희토류 수입량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함
- » JLL²⁰⁾ 중국지사의 수석 경제학자인 브루스 팡(Bruce Pang)은 11월 수출 증가는 중국 기업들이 물량을 늘리기 위해 가격 인하 전략의 사용 결과라 분석함
- 대외수요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약하고 연휴 주문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라 밝혔으며 공급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춘 전략은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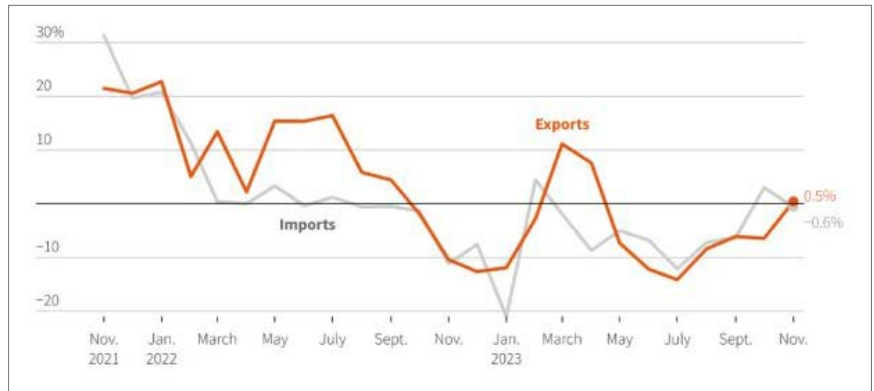
19) CNBC(2023.12.06.), <https://www.cnbc.com/2023/12/07/china-trade-data-november-2023-imports-exports.html>(2023.12.15. 검색)

20) 상업 부동산 및 투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회사임

- » 이에 따라 11월 수출의 증가세 전환이 '23년 중국의 전반적인 수출입 감소세를 상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 밝힘



2023년 중국 전년 대비 수출입
증가율



자료 :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exports-grow-first-time-6-months-imports-unexpectedly-shrink-2023-12-07/>
(2023.12.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② 주요 운하의 운항 차질로 중국 국제 해상 운송 지연 및 비용 급증²¹⁾

- » 중국에서 EU와 미국으로 가는 주요 해상 운송로인 운하들이 지정학적 요인과 가뭄 등으로 운송 차질을 빚으면서 운송비가 급증하고 배송이 지연되는 등 영향을 받고 있음
- » 수에즈 운하의 경우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우회로 인해 운송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선사들이 보험 적용 범위를 늘릴 수 있어 추가적인 비용 소요가 예상 되고 있음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와의 전쟁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겨냥하는 등 전쟁에 개입하면서 중국발 화물선이 중국과 EU 시장을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를 우회하고 있음
- » 또한, 가뭄에 따른 파나마 운하의 운송 차질로 크리스마스 용품 등을 실은 중국발 컨테이너선 수십대가 최대 4주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지연과 더불어 파나마 운하관리청은 예약이 취소된 선박이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해 슬롯을 제공하고 있어 추가적인 경매 수수료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기존 파나마 운하를 통해 미국 동부 해안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이 LA/LB항 등 미국 서부 해안의 항만에서 하역한 후 육상이나 철도 운송을 통해 동부 해안으로 운송되면서 추가적인 운송 비용이 증가함
 - 특히 중국은 파나마 운하를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국가로 '22년 회계연도 기준 파나마 운하 전체 물동량의 21.4%를 차지하고 있어 피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21) Global Times(2023.12.10.), <https://www.globaltimes.cn/page/202312/1303367.shtml>(2023.12.15. 검색)

» 한편, 중국 전문가들은 운송 기간 증가에 따른 비용 및 경매 수수료 등과 같은 추가 요금이 화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아시아

① 일본 NX홀딩스, 부산항에 자국 물류 전초기지 구축²²⁾

- » 일본의 NX홀딩스(舊 일본통운)는 부산항 배후단지에 위치한 물류센터를 일본에 대한 물류 전초기지 역할을 본격 수행한다고 밝힘
- NX홀딩스는 일본에 대한 재고를 부산항에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부산항과 일본 주요 항만 간 피더 노선을 통해 배송하고자 함
- '24년부터 '부산 허브 × 일본 지방항만' 노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으로, 부산항에서 일본 각 지역항만으로 LCL화물로 운송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일본 내에서의 재고비용과 내륙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일본 내 이산화탄소 배출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는 부산항이 약 15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 500개 이상의 항만과 연결하는 컨테이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NX의 부산항 물류센터도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해 창고에서 재고관리, 포장, 분류, 라벨링 등이 가능하기 때문임

22) NIPPON EXPRESS(2023.12.14.), <https://www.nipponexpress-holdings.com/en/press/2023/14-Dec-23-1.html>(2023.12.18.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② MSC, 인도 아다니그룹의 엔노어 컨테이너 터미널 지분 인수²³⁾

- » MSC의 자회사인 터미널 인베스트먼트(Terminal Investment Ltd, TIL)는 첸나이 남부에 위치한 아다니 엔노어 컨테이너 터미널의 지분 49%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힘
- 인도 최대 민간 항만 운영사인 아다니 그룹과 MSC는 지난 '13년 문드라항의 CT3 컨테이너 터미널에 공동 투자한 이후 두 번째 파트너십을 체결함
- 엔노어 컨테이너 터미널은 벵골만에 위치한 현대적인 터미널 시설로 연간 약 80만 TEU를 처리할 수 있으며, 아다니 그룹은 '44년까지 터미널에 대한 양허권을 갖고 있음
- 아다니 그룹과 MSC는 협력을 통해 엔노어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을 확장할 계획이며, 연간 140만 TEU 처리가 가능하도록 약 400m의 안벽길이를 가진 부두를 늘릴 계획임
- MSC의 아다니 엔노어 컨테이너 터미널 지분 인수 비용은 약 2,965만 달러로 추정되며, 인수 절차는 향후 3~4개월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23) The Maritime Executive(2023.12.15.),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msc-invests-with-adani-in-second-indian-terminal-to-grow-regional-business>(2023.12.18.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④ 싱가포르 항만청(MPA), 메탄올 벙커링 공급 업체 공모²⁴⁾

» MPA는 지난 12월 14일, '25년부터 싱가포르항에 메탄올을 연료유로 공급하는 벙커링 업체를 공모한다고 밝힘

- 세계 최대 벙커링 허브인 싱가포르항만은 '23년 7월 최초로 머스크 선박에 메탄올 급유를 시작하였음
- MPA는 탄소배출 저감 정책 추진에 따른 메탄올 동력 선박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메탄올 벙커링 업체를 공모함

24) Reuters(2023.12.14.),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singapore-port-authority-seeks-methanol-bunker-supply-proposals-2023-12-14/>(2023.12.20. 검색)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 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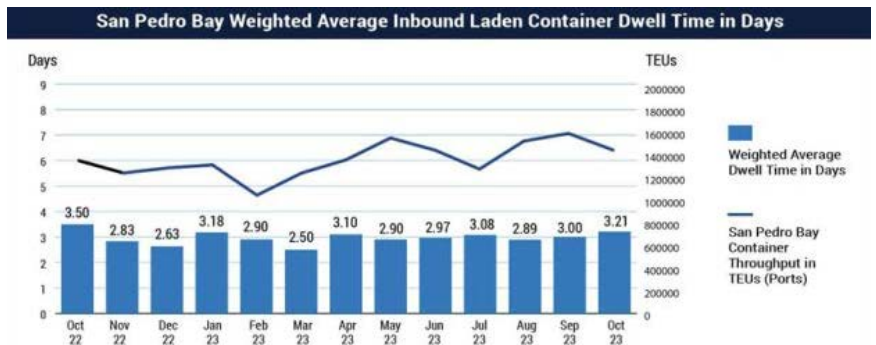
① 산 페드로 베이(San Pedro Bay)에 위치한 항만 내 트럭 화물 체류 기간, 지속적 안정세 유지²⁵⁾

» 태평양 상선 협회(PMSA)에 따르면, 10월에 LA·LB항에서 트럭을 통해 내륙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터미널 체류 기간은 평균 3.21일을 기록함

- 지난 10월, 트럭 화물의 터미널 체류 기간은 평균 3일을 기록했던 전월 대비 다소 높았으나, 지난 1년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편임
- 철도를 통한 화물의 평균 체류 기간은 5.14일을 기록하여 전월(6.54일) 대비 감소하는 등 트럭 화물과는 상반된 실적을 기록함
- 터미널에 5일 이상 머무르는 컨테이너가 지역(local) 및 철도 수송 화물의 평균 체류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10월 기준 지역 컨테이너의 9.9%, 철도 수송 컨테이너의 36%가 5일 이상 머물렀음

25) Port Technology(2023.11.21.),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san-pedro-bay-registers-solid-truck-dwell-time-for-october/>(2023.12.18. 검색)

산 페드로베이 수입 적컨 체류시간



자료: Port Technology(2023.11.21.),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san-pedro-bay-registers-solid-truck-dwell-time-for-october/>(2023.12.18.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② 롱비치(LB)항, B부두(Pier B) 철도시설 입찰 계획 발표²⁶⁾

» 롱비치항 B부두 온도크(On-Dock) 철도 조차장 크기를 기존 82에이커에서 171에이커로 확장하고 철도 화물처리량을 연간 150만 TEU에서 470만 TEU로 늘릴 계획임

- 사업에는 철로 130,000피트 이상 추가 건설, 선로의 확대(12개→48개), 도밍게스 해협(Dominguez Channel) 철교의 확장 및 선로 확대(2개→3개), 인접 도로 개선 작업이 포함됨
- 또한 철도 시설에는 최대 30대의 기관차에 동시에 연료를 공급하고 정비할 수 있는 창고와 최대 10,000피트 길이의 열차를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도 갖출 계획임
- 산페드로 베이 항만구역에서 이동하는 화물의 약 25%가 시카고(일리노이주), 위치토(캔자스주), 애틀랜타(조지아주)와 같은 허브시설로 옮겨지며, 온도크 철도는 내륙 수송에 가장 적합함
- 해당 사업은 철도 조차장의 동쪽 확장을 시작으로 10개의 세부 사업을 통해 추진될 예정으로 '24년 1분기에 첫 번째 사업 구간 입찰이 시작되어 가을에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며, 연내에 기관차 시설 건설 입찰을 모색하여 '25년에 건설을 시작할 전망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③ 롱비치(LB)항, 친환경 야드 트랙터 도입²⁷⁾

» 롱비치항 SSA Terminals LLC는 사람이 탑승하여 운전하는 전기 야드 트랙터 33대를 도입함

- 도입된 전기 야드 트랙터는 기존 가솔린 및 디젤 기반의 트랙터를 대체하는 배터리 탑재방식의 전기 트랙터이며, 탄소 배출이 거의 0에 가까움
- 도입에는 캘리포니아 기후 투자(California Climate Investments)의 일환인 START(Sustainable Terminals Accelerating Regional Transformation) 프로젝트의 보조금이 일부 투입되었으며, 장비에 대한 추가 자금은 미국 환경 보호국의 목표 대기 보조금(Targeted Airshed Grant)을 통해 제공됨
- 새로운 친환경 장비 도입으로 롱비치항의 무공해 장비 비중이 약 20%에 달하고 있음

26) Port Technology(2023.11.30.),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long-beach-seeks-construction-contract-for-pier-b-rail-facility/>(2023.12.18. 검색)

27) Port Technology(2023.12.06.),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long-beach-adds-33-eco-trucks-to-fleet/>(2023.12.18.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④ 뉴욕·뉴저지 항만공사(PANY/NJ),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Port Street Corridor Improvement' 공사 시작²⁸⁾

» PANY/NJ는 포트 스트리트(Port st.)와 코빈 스트리트(Corbin st.)에 위치한 뉴어크(Port Newark)의 북쪽 입구 개선 사업을 시작함

- 해당 인터체인지는 항만과 인접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연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며, 연결부 재설계를 통해 넓은 회전 반경을 갖춘 효율적인 도로로 개선하여 항만을 이용하는 트럭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임
- 또한, 개선을 통해 트럭 운행 시간 절약과 공급망 전반에 걸친 효율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임
- 차량 이동 시간 절약으로 연간 평균 연료 소비는 약 70,000갤런 감소하고 연간 약 750톤의 탄소 배출이 방지되는 등 주변의 공기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사업은 '21년 7월 미국 교통부의 INFRA(Infrastructure for Rebuilding America) 프로그램으로부터 4,4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사업은 '28년에 완료될 예정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⑤ 뉴욕·뉴저지 항 APMT Elizabeth 터미널, Super Post-Panamax급 크레인 2기 설치²⁹⁾

» APMT Elizabeth에 신규 도입한 안벽 크레인은 23열 규모이며, ULCV(Ultra Large Container Vessel)급과 Neo-Panamax급 선박의 하역 작업이 가능함

- 신규 크레인에 대한 검사는 모두 마쳤으며, 미국 동안 항만에 기항하는 가장 큰 선형인 18,000TEU급 컨테이너선 화물의 하역이 가능함
- 새로운 크레인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항을 위한 7천만 달러 규모의 하역장비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추가 도입되는 크레인 6기 중 첫 2기에 해당함
- 해당 터미널에는 기존에 도입한 Super Post-Panamax급 크레인 4기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25년 1분기까지 추가 도입되는 크레인 6기를 합쳐 총 10개의 Super Post-Panamax 크레인을 운영하여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일 예정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8) Port Technology(2023.11.30.),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anynj-kickstarts-220-million-street-corridor-project/>(2023.12.18. 검색)

29) Port Technology(2023.12.15.),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apmt-elizabeth-introduces-new-super-post-panamax-cranes/>(2023.12.18. 검색)

⑥ 조지아 항만공사(GPA), 터미널 용량 확장에 1억 2,700만 달러 투자³⁰⁾

- » GPA 이사회는 게인스빌(Gainesville) 내륙 철도 터미널인 블루리지 커넥터(Blue Ridge Connector) 건설을 위한 1억 2,700만 달러 예산을 승인함
- 게인스빌 내륙 철도 터미널인 블루리지 커넥터는 조지아주 북동부 및 서배너항의 35개 글로벌 컨테이너 선박 서비스를 연결하는 철도 물류 네트워크이며, '26년에 개장할 예정임
- 블루리지 커넥터는 GPA 자금 및 연방 해양청의 보조금 4,680만 달러가 투입되며, 해당 시설은 Norfolk Southern Railroad를 통해 서배너(Savannah)의 Mason Mega Rail 터미널과 연결될 예정임
- 한편, GPA는 2년간의 프로젝트를 거쳐 지난달 컨테이너 중심의 서배너항 가든시티 터미널 1부 두를 재개장하여 16,000TEU 이상의 선박 기항이 가능해졌으며, Ro-Ro화물 중심의 브런즈윅(Brunswick)항에서는 2억 6,200만 달러 규모의 확장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⑦ 에버글레이드(Everglades)항, Super Post-Panamax급 크레인 3기 추가 도입³¹⁾

- » 에버글레이드항은 4억 7,1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통해 Super Post-Panamax급 안벽 크레인 3대를 추가로 도입함
- 에버글레이드항의 기존 안벽 크레인 7기는 높이가 151피트로, 6단 컨테이너와 16열 컨테이너 하역이 가능했음
- 신규 도입한 175피트 높이의 Super Post-Panamax 크레인은 한 기당 가격이 약 1,510만 달러로 선박 갑판에 적재된 8단, 22열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으며, 60~90일 내에 정상 가동할 전망임
- 이번 안벽 크레인 도입으로 에버글레이드항의 총 크레인 수는 Super Post-Panamax 6대, Post-Panamax 7대, Paceco 1대, 이동식 하버 크레인 1대로 늘어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0) Port Technology(2023.12.06.),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georgia-ports-splashes-127-million-on-expanding-terminal-capacity/>(2023.12.18. 검색)

31) Port Technology(2023.12.07.),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everglades-acquires-new-sts-container-gantry-cranes/>(2023.12.18. 검색)

⑧ 잭슨빌 항만공사(JAXPORT), 터미널 현대화 프로젝트 중간 단계 도달³²⁾

▶ SSA Marine은 '22년 SSA Jacksonville 컨테이너 터미널의 확장 및 현대화를 위해 7,2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프로젝트의 중간 단계에 도달함

- 터미널은 최근 업그레이드된 조명과 재설계된 터미널 게이트 시스템을 설치하고 약 40에이커를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등 8단계 프로젝트의 중 4단계를 완료한 상황임
- 현재 6개의 새로운 아웃바운드 트럭 차도가 건설 중으로 '24년 2월에 개장할 예정이며, 6개 인바운드 차로 개선 작업은 '24년 말에 완료될 예정임
- '25년에 사업이 완공되면 현재 처리량보다 150% 증가한 연간 50만 TEU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JAXPORT의 전체 터미널 처리능력은 현재 처리량의 약 2배에 달하는 연간 200만 TEU 이상이 될 전망이다

32) Port Technology(2023.12.15.),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jaxport-terminal-modernisation-project-hits-midway-milestone/>(2023.12.18.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 유럽

① MSC, 함부르크항 터미널운영사 HHLA 인수 유력³³⁾

- »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MSC의 함부르크항 터미널운영사 HHLA(Hamburger Hafen und Logistik AG) 그룹에 대한 주식 공개매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MSC의 HHLA 터미널 및 운송·물류 사업 인수가 유력해짐
- MSC는 지난 9월 HHLA의 인수와 관련하여 함부르크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MSC는 4억 5천만 유로의 단기 투자 약속과 함께 독일 본사를 기존 브레멘에서 함부르크로 이전, '30년까지 함부르크항 운항을 늘려 연간 100만 TEU 상당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계획을 발표함
- 12월 7일 입찰 마감 후, MSC는 HHLA 발행 주식 중 약 22%를 보유하게 되어 함부르크 시가 보유한 지분과 합치면 약 92.3% 수준을 차지하게 되었고,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주식을 매입하여 함부르크시가 회사 지분의 51%, MSC가 49%를 인수한 후 HHLA를 비상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거래가 발표된 후 노동조합과 정치적 반대가 모두 있었으며, 거래 완료를 위해서는 여전히 규제 당국과 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곧 거래가 승인되어 '24년 2분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임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② 글로벌 컨테이너선사, 수에즈 운하 및 홍해 항로 통행 중단³⁴⁾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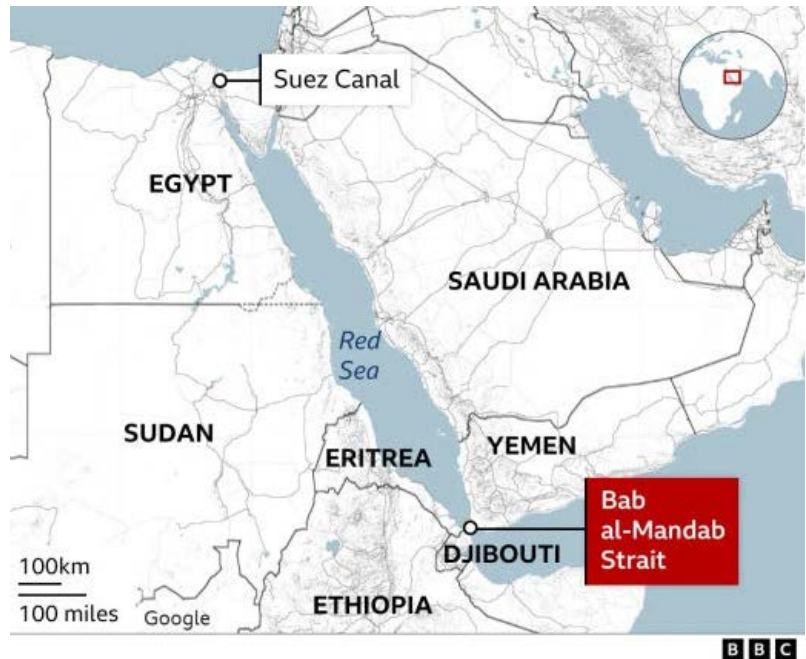
- » 홍해 항로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해상공격이 잇따르며 주요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인 MSC, 머스크, 하파그로이드가 홍해 운항을 일시 중단함
-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에서, 하마스의 측면 지원에 나선 친이란 예멘 반군조직 후티 세력이 해상공격을 개시, MSC 팔라티움 III호, 하파그로이드 알자스라호, 머스크 지브롤터호 등 민간 화물선이 잇따라 공격을 받음
- 후티는 하마스에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 보급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항구로 가는 모든 선박 항해를 막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홍해 항로의 동쪽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MSC, 머스크, 하파그로이드 등 유럽 국적 선사와 이스라엘 선사 ZIM 등은 홍해 통행이 안전해질 때까지 수에즈 운하와 홍해 통행을 중단할 것이며, 일부 서비스는 희망봉을 경유하도록 경로를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함
- 한편, 홍해의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와 이어져 연간 약 1만 7천여 척의 선박과 약 10%의 물동량, 약 30%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처리되는 주요 수송로임

33) The Maritime Executive(2023.12.12.),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msc-completes-hamburg-tender-as-acquisition-of-port-operator-hhla-proceeds>(2023.12.14. 검색)

34) Seatrade Maritime(2023.12.18.), <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top-container-lines-reroute-red-sea-avoid-attacks>(2023.12.18. 검색)

35) BBC(2023.12.16.),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67731853>(2023.12.18. 검색)

홍해 항로 및
바브엘만데브 해협 위치



자료: BBC,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67731853>(2023.12.18.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③ 지중해 지역 7개국, EU ETS 개정 요구³⁶⁾

- » 유럽연합 선박배출권거래제(EU ETS)가 '24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12월 5일 열린 유럽연합 교통부 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해운부 장관은 지중해 7개국의 EU ETS에 대한 우려 사항을 발표, ETS 시행 연기를 촉구함
- 그리스, 몰타, 스페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등 지중해 7개국은 ETS 이행에 따른 EU 항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EU에 발송함
- 현재 ETS 법률에는 EU 항만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EU 블록의 300해리 (556km) 내 위치한 비EU 항만까지를 적용 범위로 포함하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는 해당 범위 안에 포함되며 환적 물동량이 전체 물동량의 65%를 초과하는 모로코 Tanger Med항과 이집트 East Port Said항이 비EU권 ETS 적용 항만으로 정의되어 있음
- 그러나 북아프리카, 터키, 중동 등 인근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EU ETS 적용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어, 남부 유럽 국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36) Seatrade Maritime(2023.12.08.), <https://www.seatrade-maritime.com/regulation/concerns-grow-eu-ets-will-hurt-med-ports>(2023.12.18. 검색)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ETS의 해외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ETS 시행은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5) 오세아니아

①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로 호주 주요 항만 봉쇄³⁷⁾

- »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자들이 이스라엘 해운회사인 ZIM 소유 선박의 적재 및 하역 작업을 지연시키기 위해 호주 멜버른, 시드니 및 프리맨틀항의 진입도로를 봉쇄하여 지연이 발생함
-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가자 지구 공격으로 전 세계 친(親)팔레스타인 운동가들은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 및 튀니지 등에서 'Block the Boat'라는 슬로건으로 대규모 시위를 진행함
-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자들은 이스라엘 최대 해운사이자 세계에서 열 번째로 큰 해운사인 ZIM이 이스라엘의 군사 물자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무기 운송업체라고 주장함
- » 지난 11월 8일 멜버른항 컨테이너 터미널 게이트 봉쇄를 시작으로 동월 11일 및 21일 보타니항 진입도로 봉쇄, 제트스키를 활용해 선박 접근을 방해함
- 또한 12월 2일 및 7일 프리맨틀항 진입도로를 차단했으며 카약을 타고 세 척의 ZIM 선박의 접근을 방해해 약 24시간 이상의 시간 지연이 발생함
- » 호주 정부는 '22년 시드니항에서 발생한 반(反)화석 연료 봉쇄 시위로 인해 제정된 시위법에 따라 이번 항만 봉쇄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자에게 최대 22,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37) Jacobin(2023.12.13.), <https://jacobin.com/2023/12/australia-palestine-solidarity-zim-isreal-war-gaza-blockade>(2023.12.13.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6) 아프리카

①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더반항 '24년 2월까지 심각한 지연 예상³⁸⁾

▶ 남아공 콰줄루나탈주 더반항의 화물 적체로 인해 '24년 2월까지 해상 및 육상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됨

- 11월 말 더반항의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극심한 지연 및 혼잡으로 약 7만 개의 컨테이너가 적체되었으며 이러한 항만적체는 최소 2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항만당국은 '24년 2월까지 항만적체를 해소하고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지연이 급증한 이유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불분명하지만 만성적인 항만 관리 및 운영 효율성 부족을 지연의 원인으로 예상함
- 화물 반출입 지연으로 선박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선박 대기시간 증가로 화물 배송 및 지상 운송이 지연되는 것으로 예상됨

▶ MCS와 머스크는 남아공 항만의 심각한 지연 발생으로 12월부터 남아공 항만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200~400달러의 혼잡료를 부과함³⁹⁾

38) Crisis24(2023.11.28.), <https://crisis24.garda.com/alerts/2023/11/south-africa-severe-delays-at-port-of-durban-kwazulu-natal-likely-through-february-2024-amid-backlog>(2023.12.19. 검색)

39) Engineering news(2023.11.07.), <https://www.engineeringnews.co.za/article/shipping-giants-hit-sa-containers-with-congestion-charges-amid-massive-delays-at-ports-2023-11-07>(2023.12.19.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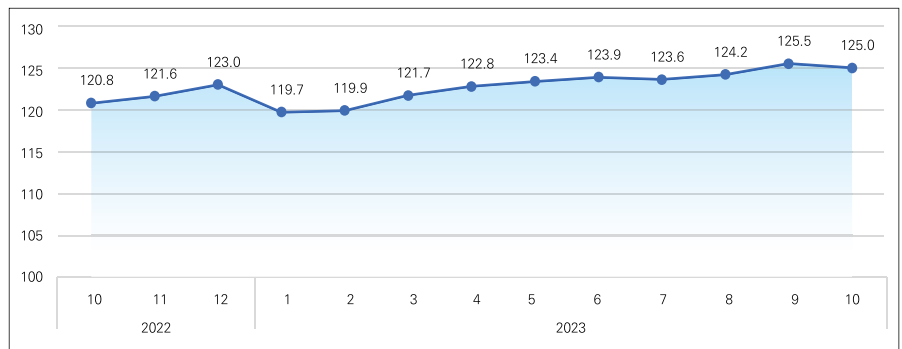
① '23년 10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대비 3.4% 증가⁴⁰⁾

» '23년 10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0.4% 감소함

- 최근 3개월간 전년 대비 회복세가 개선되고 있으며, 유럽 항만의 물동량 처리 감소세도 다소 누그러지고 있음
- 10월의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 지수는 중국에서의 처리량이 전월 139.2p에서 140.2p로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감소세를 일부 완화 시킴
- 유로존 북부와 독일 지역의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103.8p에서 10월 103.3p로 하락하였으나, 그 하락세는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0) ISL, <https://www.isl.org/en/containerindex/july-2023>(2023.12.15. 검색)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컨테이너	120.9	121.5	123.2	119.7	119.9	121.7	122.8	123.4	123.9	123.6	124.2	125.5	125.0	-0.4	3.4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ISL, <https://www.isl.org/en/containerindex/july-2023>(2023.12.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② '24년 컨테이너 선사 실적 악화 전망⁴¹⁾

-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 감소 및 공급 과잉 등으로 컨테이너 운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24년은 더욱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 벤치마킹 및 해운시장 분석 플랫폼인 Xeneta가 발표하는 글로벌 장기 계약 운임 지수인 XSI(Xeneta Shipping Index)의 11월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2.3% 낮은 158.5p 까지 하락했다고 밝힘
- 실제 머스크를 포함한 주요 해운선사들의 '23년 3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는데, 이는 물량 감소보다는 운임 하락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 운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2년에 체결된 계약들이 대부분 내년 초에 갱신될 예정임에 따라 '24년도 선사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당초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24년 1분기에 위기가 올 것을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더 빠르게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선사들은 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복량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되나,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 경고함

41) Seatrade Maritime(2023.12.01.), <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container-lines-could-face-catastrophic-losses-2024>(2023.12.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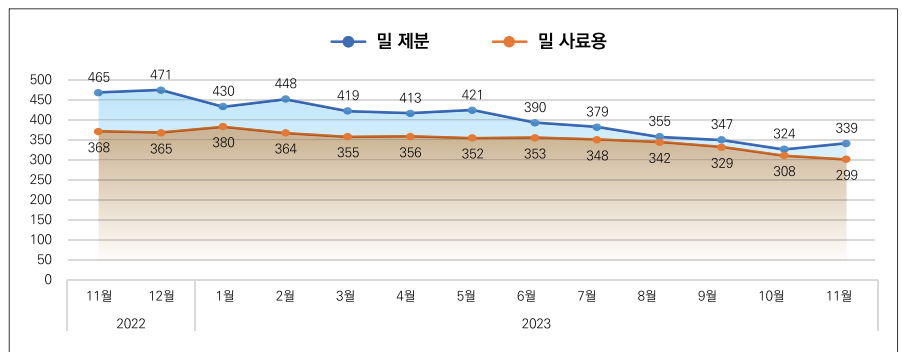
2) 양곡

① 11월 사료용 곡물 수입 단가는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 식용 밀과 콩의 수입단가는 상승⁴²⁾

» 식용 밀의 11월 수입단가는 전월대비 4.5% 상승한 339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식용 콩의 수입단가(603달러/톤)도 전월대비 9.5% 상승함

- 11월 사료용 밀의 수입단가는 전월대비 18.8% 하락한 299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사료용 옥수수 (267달러/톤)의 수입단가도 전월 대비 하락세(-6.0%)를 기록함

밀 수입단가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국제곡물 관측월보 9월호

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국제 곡물 관측월보 12월호(2023.11.30.),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535/page/1\(2023.12.21 검색\)](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535/page/1(2023.12.21 검색))

(단위: 달러/톤)

옥수수 수입단가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식용	383	367	381	371	356	345	346	339	325	300	305	289	278
사료용	338	335	336	333	332	334	337	336	332	321	305	284	267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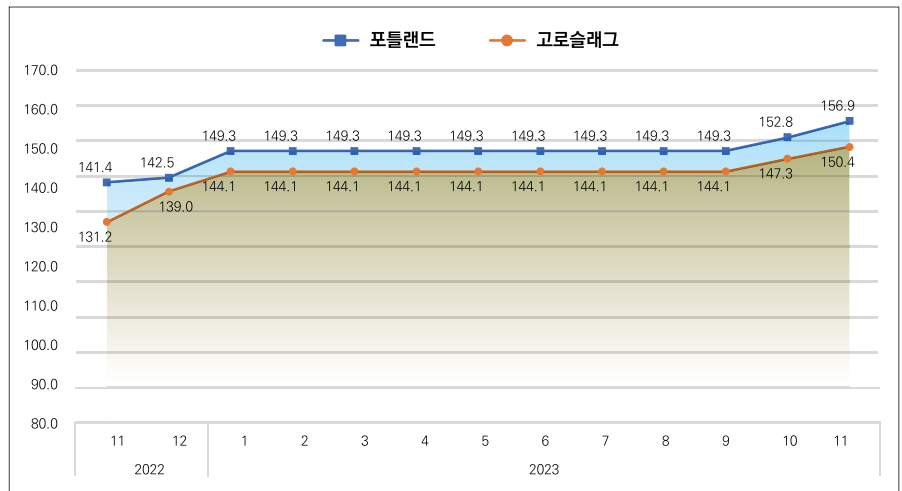
① 11월 생산자물가지수 포틀랜드 2.7%, 고로슬래그 2.0% 증가

» 포틀랜드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156.9p, 150.4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14.6% 증가함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3년 1월 이후 9개월 동안 증감없이 보합세를 보이다가 10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함

(단위: 2015년 = 100기준)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30.7	141.4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52.8	156.9	2.7	11.0
고로슬래그	126.7	131.2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7.3	150.4	2.0	14.6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3.12.26.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3.12.26.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② '23년 분양·착공 감소에도 시멘트 수요 유지⁴³⁾

»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줄어드는 등 건설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도 시멘트 수요는 유지됨

- 시멘트 업계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으로 철근 누락과 함께 콘크리트 강도 미흡 문제가 지적됐던 것과 맞물려 건설 현장에서의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시멘트 사용량을 늘렸다고 분석함
- '23년 12월 5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공급량은 10만 384가구로 전년 동기(15만 4,535가구) 대비 약 35% 감소함
- 또한 국토교통부 전국 인허가 현황을 보면 지난 3분기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44.2% 감소했으며 착공 실적도 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50.5%, 아파트 외 주택은 52.5% 감소함
-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시멘트 수요는 줄어든 것으로 전망됐으나 주요 시멘트 업계 매출은 증가함
- 지난 3분기 기준 쌍용C&E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 한일시멘트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함

» 시멘트 업계는 건설업체들이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보다 단위 면적당 시멘트 사용량을 늘려 시멘트 수요가 유지된 것으로 분석함

- 다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4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건설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2.4% 감소한 254조 원 규모로 전망함
- 시멘트 업체 관계자는 인허가 물량 감소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며 '24년에는 올해 대비 판매량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43) 대한전문건설신문(2023.12.18.),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369\(2023.12.18 검색\)](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369(2023.12.18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 모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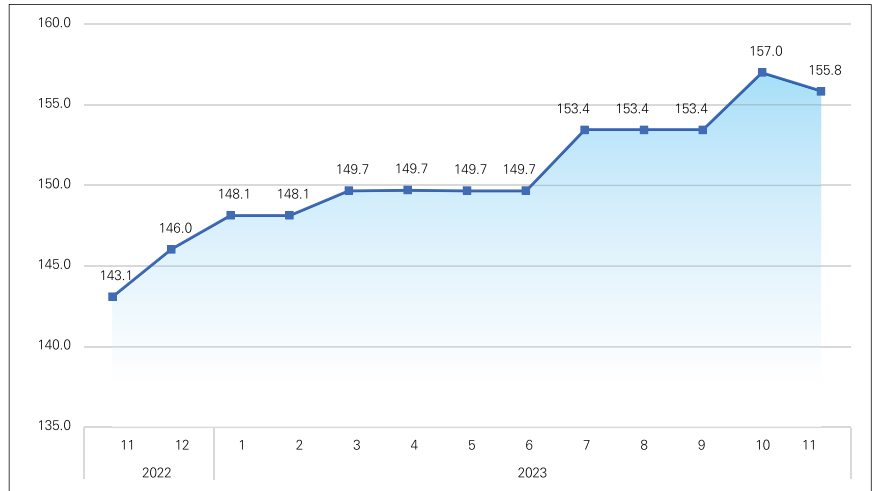
①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55.8p 기록

»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감소한 반면,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함

- '23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보합세를 보이다가 10월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11월 다시 감소세를 보임

(단위: 2015년 = 100기준)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39.2	143.1	146.0	148.1	148.1	149.7	149.7	149.7	153.4	153.4	153.4	157.0	155.8	-0.7	8.9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3.12.26.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3.12.26.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② 국토교통부, 골재 품질을 위해 수시검사 확대⁴⁴⁾

»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본격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향후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임

- 검사 1주일 전 사전공지하는 정기검사의 적발률은 약 5%였으나, 수시검사는 불시점검으로 적발률이 약 25%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국토교통부는 '23년 한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

4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12.19.),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cmspage=1&id=95089168\(2023.12.19. 검색\)](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cmspage=1&id=95089168(2023.12.19. 검색))

시검사를 실시했으며 수시검사 결과, 7개의 골재채취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가장 많은 불합격의 원인은 이물질 제거 불량임

-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21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품질시험 미실시, 저장 설비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는 KS 인증취소 조치를 요구함
- » 국토교통부는 수시검사 확대를 위해 품질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23년 1월 16일 발의된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임
- 국토교통부는 골재의 생산, 판매 및 유통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 추진을 통해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할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5) 석탄

① '23년 11월 유연탄 가격은 전월 대비 감소함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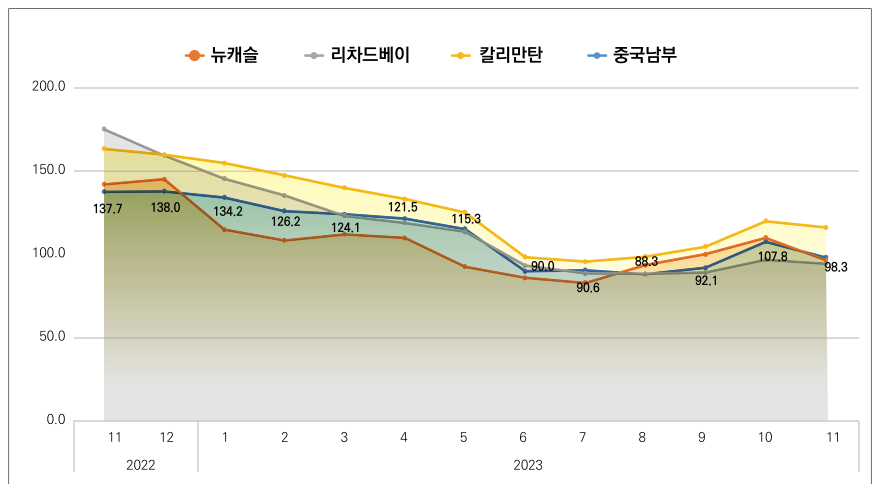
»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기준 연료탄 11월 평균가는 98.3달러로 전월 대비 8.8% 감소함

- 지역별로는 호주 뉴캐슬산 유연탄 가격이 8.8%, 남아공 리차드베이산 12.2%, 인도네시아 칼리만 탄산은 2.5% 감소함(전월 대비 기준)

45)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3.12.26. 검색\)](https://www.komis.or.kr/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3.12.26. 검색))

(단위: 달러/톤)

유연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137.7	138.0	134.2	126.2	124.1	121.5	115.3	90.0	90.6	88.3	92.1	107.8	98.3	-8.8	-28.6
리차드베이	142.2	145.2	114.9	108.5	112.2	110.0	92.7	86.0	83.1	93.6	100.2	110.1	96.7	-12.2	-32.0
칼리만탄	175.3	159.6	145.5	135.5	123.3	119.0	113.7	93.5	88.7	88.5	89.2	96.9	94.5	-2.5	-46.1
중국남부	163.4	159.9	155.0	147.7	140.1	133.4	125.4	98.6	95.8	98.8	104.9	120.1	116.3	-3.2	-28.8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3.12.26. 검색\)](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3.12.26.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② 국제에너지기구(IEA), '24년부터 석탄 수요 감소 시작 전망⁴⁶⁾

» 국제에너지기구는 '23년 전 세계 석탄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IEA는 연례 석탄 보고서를 통해 '23년도 전 세계 석탄 수요가 전년 대비 1.4% 증가해 최종 85억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 석탄 수요는 주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전력 수요 증가와 수력 발전량 감소가 석탄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함
- IEA는 석탄 수요 및 생산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90년 전 세계 4분의 1에 불과했던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의 석탄 소비량이 올해 전 세계 소비량의 4분의 3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동남아시아의 석탄 소비는 올해 처음 미국과 유럽연합의 소비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태양열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부터 '26년까지 세계 석탄 수요는 올해 대비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 내년부터 석탄 수요가 감소하면서 '26년까지 정체될 것으로 전망함
- IEA는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이 '26년까지 약 80억 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 사용량을 훨씬 더 빠르게 줄여야 한다고 지적함

46) KBS뉴스(2023.12.1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3062>(2023.12.18.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6) 철광석

① '23년 11월 철광석 가격 전년 동월 대비 42.7% 급증한 130.1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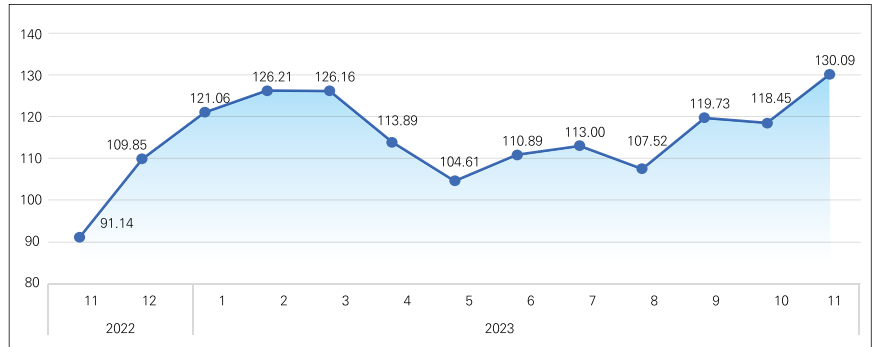
» '23년 10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130.1달러를 기록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함

- 철광석의 낮은 재고량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로 10월 중순 이후 가격이 상승하여 11월 평균 톤당 130달러를 넘어섬
- 특히, 최근 중국 경기 부양의 기대감과 함께 중국이 '21년과 '22년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철강 생산을 제한했으나 '23년에는 경기 하락을 우려해 생산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중국 기업들의 철강 생산량 증가가 철광석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됨⁴⁷⁾

47) 한국경제(2023.12.0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83313>(2023.12.15 검색)

(단위: 달러/톤)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91.1	109.9	121.1	126.2	126.2	113.9	104.6	110.9	113.0	107.5	119.7	118.5	130.1	9.8	42.7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3.12.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② 중국 수요 회복 영향으로 내년 철광석 가격 톤당 150달러 전망⁴⁸⁾

- »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철강 수요가 증가하면서 '23년 11월 철광석 가격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톤 당 130달러를 넘어섬
- 중국은 전 세계 철광석의 약 3분의 2를 수입하는 최대 수입국으로 중국의 경제상황이 철광석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구조임
-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유동성 위기에 따른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생애 첫 주택 자격 요건 완화 등 경기 부양책을 실시함
- 또한 현재 국유·민영 부동산 기업 50여 곳에 융자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철광석 가격은 톤 당 최고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항만에서의 재고 감소, 철광석 생산량 축소 등의 영향으로 철광석 가격 증가세는 지속될 예정임
- 한편, 이로 인해 올해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년 10억 6,500만 톤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음

48) 한국경제(2023.11.3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303968>(2023.12.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7) 기타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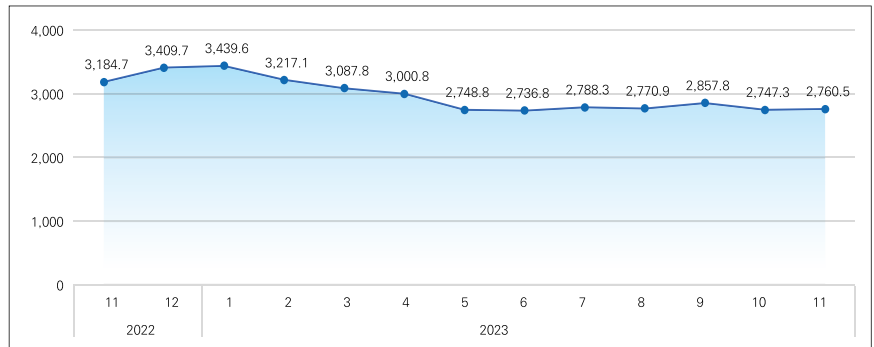
① 11월 기준 광물종합지수는 2,760.5p로 전월 대비 0.5% 증가함⁴⁹⁾

49)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priceStocks/priceStocks/priceStocks.do>(2023.12.26. 검색)

» '23년 11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0.5%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3.3% 하락한 2,760.5p를 기록함

광물종합지수 추이

(단위: 2016년 = 1,000기준)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3,184.7	3,409.7	3,439.6	3,217.1	3,087.8	3,000.8	2,748.8	2,736.8	2,788.3	2,770.9	2,857.8	2,747.3	2,760.5	0.5	-13.3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② 산업통상자원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⁵⁰⁾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함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일한 중 하나임
-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24년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함
- 또한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 및 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체계를 도입할 예정임

»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함

- 또한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향후 5년('24~'28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등 '24년부터 연구개발(R&D)에 총 736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5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12.13.),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8310&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1&dept_v=&search_val_v=%EA%B4%91%EB%AC%BC(2023.12.18.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8) 목재

① '23년 1~10월 누적 원목 수입량은 177.5만 m로 전년 동기 대비 18.9% 감소⁵¹⁾

- » 전 세계 경제 침체, 특히 건설경기 부진으로 목재 수요가 감소하여 산지의 목재제품 가격의 하락 및 보험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원화 환율상승으로 국내 수입가격은 보험 및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23년 국내 목재 품목별 누적 수입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원목은 18.9%, 제재목은 5.6%, 성형목재는 14.9%, 합판은 5.6%, 목재펠릿은 3.6% 감소함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3년 누적(1-10월)	2022년 누적(1-10월)	증감률(%)
원목(천m ³)	1,775	2,189	-18.9
제재목(천m ³)	1,494	1,582	-5.6
성형목재(톤)	68,593	80,627	-14.9
합판(천m ³)	1,097	1,162	-5.6
파티클보드(천m ³)	1,028	1,065	-3.5
섬유판(천m ³)	189	172	+9.9
목재펠릿(천 톤)	3,051	3,164	-3.6

51)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3.11.23.),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89376&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e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12.14. 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89376&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e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12.14. 검색))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3.11.23.),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89376&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e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12.14. 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89376&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e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12.14. 검색))

최석우 부연구위원

051-797-4777, schoi@kmi.re.kr



②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분야 발전방향 모색 워크숍 개최⁵²⁾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1월 30일(목)부터 12월 1일(금) 이틀 동안 ‘2024년 목재산업분야 발전방향 모색 워크숍’을 개최함

- 이번 워크숍은 '24년도 목재산업연구과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의 방향과 목재산업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으며, 목재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 관련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짐
- 이날 논의된 연구과제는 국산 목재의 환경가치를 반영한 전과정 물질흐름분석 모델 개발, 목재제품의 탄소집약소재 대체 증진 연구, 목재자원·산업 정보 및 목재문화 지표를 연계한 목재이용 모델 개발 등임

52) 국립산림과학원 보도자료(2023.12.01.), https://nifos.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aP6MDCG9W1bwem9Fq513Uqdc62PDxaEdfWitZdhKa4N9MDk5n58NyuxoUOBZoVon.frswas02_servlet_engine5?nttid=3189635&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150&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UKFR_03_03&orgId=kfri(2023.12.14. 검색)

최석우 부연구위원

051-797-4777, schoi@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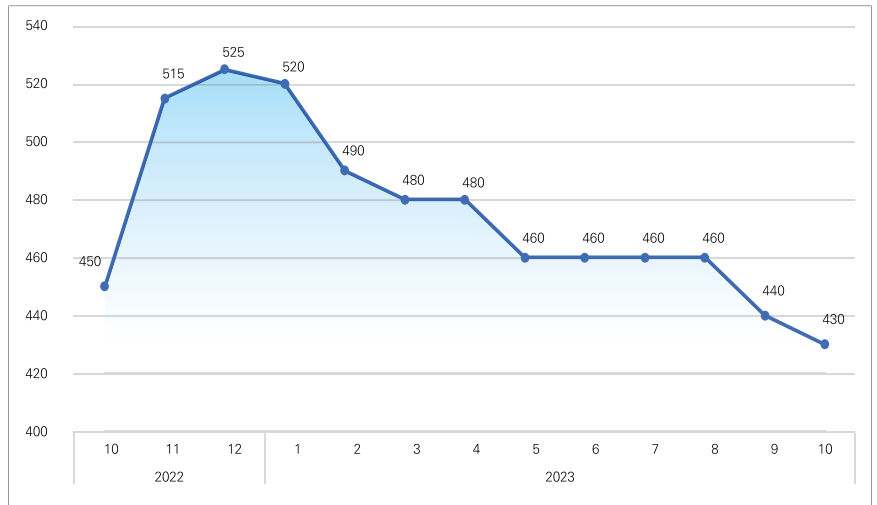
9) 고철

① 국내 고철 가격 하락세 지속

- » 국내 11월 생철 가격은 톤당 43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월 대비 2.3%,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한 수준임
- '23년 1월 톤당 52만 5천 원을 기록한 생철 가격은 철강 수요 감소로 인해 11개월 연속 보합세 및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

(단위: 천 원/톤)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450	515	525	520	490	480	480	460	460	460	460	440	430	-2.3	-4.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② 철강 수요 둔화에 따라 수입 물동량 감소, 자급률 상승⁵³⁾

- »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10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고철 수입은 7.4% 감소, 자급률은 2.0%p 상승함
- 지속된 철강 전방산업 시황 악화로 고철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자가발생을 제외한 국내 고철 구입량이 10월 누적 기준 1,477만 7천 톤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1,474만 2천 톤 대비 소폭(0.2%) 증가한 반면, 수입은 309만 9천 톤을 기록하여 전년 333만 4천 톤 대비 7.4% 감소함
- 특히, 수입 물동량은 '19년까지 5년 연속 연간 6백만 톤 수준을 유지했으나, '20년부터 3년 연속 4백만 톤 수준을 유지 중이며, 올해 또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올해 고철 자급률은 10월 누적 기준 86.8%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84.8% 대비 2.0%p 상승한 수준을 나타냄
- 국내 고철 자급률은 '19년까지 80% 미만 수준에 머물렀으나, '20년 85.1%로 급등한 이후 '21년 85.8%, '22년 84.9%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 중임

53) 철강급속신문(2023.12.13.), <http://pdf.snmnews.com/PDF/REAL/2023/12/13/P5011213010100301B0001.pdf>(2023.12.18.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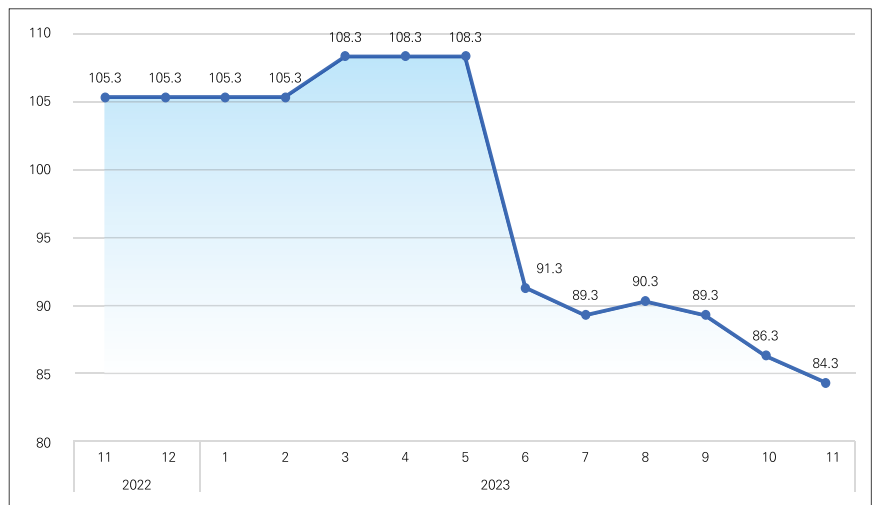
10) 철재

① 국내 열연코일 가격 전월 대비 소폭 증가

- » 11월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전월 대비 2.3%, 전년 동월 대비 19.9% 하락한 톤당 84만 3천 원을 기록함
- '22년 4월에 톤당 130만 원대 후반을 기록하는 등 높은 가격을 나타냈던 열연코일 가격은 작년 하반기에 톤당 100만 원대까지 급격히 하락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속된 철강 전방 수요 침체로 톤당 80만 원대까지 하락함

(단위: 만 원/톤)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105.3	105.3	105.3	105.3	108.3	108.3	108.3	91.3	89.3	90.3	89.3	86.3	84.3	-2.3	-19.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② '24년 철근 수요, 900만 톤 초반대까지 감소 전망⁵⁴⁾

» '23년 10월 누적 철근 수요가 809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한 가운데, '24년 연간 총수요는 926만 톤까지 감소하여 1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10월 누적 철근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한 799만 3천 톤을 기록한 가운데, 철근 내수 판매량은 5.8% 감소한 767만 3천 톤을 기록, 철근 수입 물동량은 18.6% 감소한 42만 4천 톤을 기록함
- 이에 따라 올해 철근 총수요는 971만 7천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 1,028만 4천 톤과 비교해 5.5% 감소한 수준임
-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PF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올해 철근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건설수주가 올해 대비 1.5% 추가 감소, 건설투자가 0.3% 감소하는 등 '24년 건설경기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함
- 이에 따라 내년 철근 수요는 926만 톤까지 감소하여 지난 '12년 921만 톤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54) 철강금속신문(2023.12.18.), <http://pdf.snmnews.com/PDF/REAL/2023/12/18/PS011218010100401B0001.pdf>(2023.12.18.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11) 자동차

① '23년 10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4만 1,349대로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⁵⁵⁾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0월 내수는 국산차의 신차효과 지속에도 불구하고 전년 신차 출고 증가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함

- 국산차는 전년 동월 대비 1.4%, 수입차는 5.1% 감소함
-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5.5% 증가한 49,094대이며,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과 수입차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로 하이브리드는 79.3% 증가한 반면, 전기차는 전년 동월 대비 17.2% 감소함

» 10월 수출은 최대 수출시장인 북미·유럽 내 견조한 국산 SUV·친환경차 수요로 인한 수출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한 225,391대를 기록함

- 친환경차 수출은 1.0% 증가한 53,174대이며, 특히 전기차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5.3% 증가함
- 완성차 수출액은 판매단가가 높은 전기차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9.8% 증가한 59억 달러를 기록, 16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임
- 부품 수출액은 친환경차로의 수요 이동에 따른 내연기관용 부품 수요 하락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한 18억 달러를 기록함

» 생산은 기아의 부분 생산 차질 및 KG모빌리티의 조립라인 통합공사에 따른 생산 차질에도 견조한 글로벌 수요와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로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한 341,024대를 기록함

55)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 (2023.11.24.),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00&menu=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3.12.14. 검색\)](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00&menu=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3.12.14. 검색))

(단위 : 대, 백만 \$, %)

'23. 10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률		
	연간	10월	1~10월	9월	10월	1~10월	전월비	전년 동월비	1~10월
내수	1,684,113	144,363	1,367,141	133,709	141,349	1,435,528	5.7	-2.1	5.0
(국산차)	1,384,722	118,569	1,126,881	106,609	116,863	1,204,177	9.6	-1.4	6.9
(수입차)	299,391	25,794	240,260	27,100	24,486	231,351	-9.6	-5.1	-3.7
수출	2,300,333	207,594	1,865,093	196,877	225,391	2,274,496	14.5	8.6	22.0
(완성차 수출액)	54,067	4,912	43,272	5,231	5,884	57,961	12.5	19.8	33.9
(부품 수출액)	23,316	1,840	19,473	1,942	1,772	19,266	-8.8	-3.7	-1.1
생산	3,757,049	328,173	3,023,880	301,804	341,024	3,505,453	13.0	3.9	15.9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3.11.24.),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00&menu=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3.12.14. 검색\)](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00&menu=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3.12.14. 검색))

최석우 부연구위원

051-797-4777, schoi@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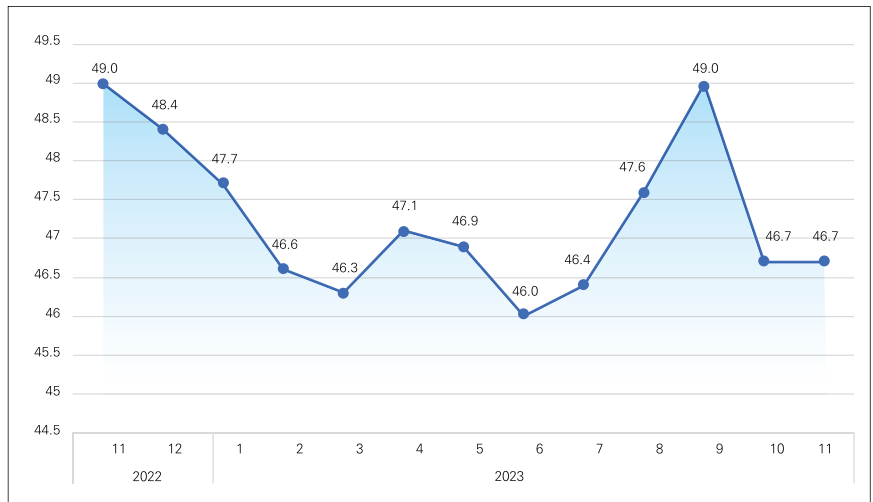
12) 잡화

① '23년 11월 ISM(미국 공급자관리협회)의 PMI 지수는⁵⁶⁾ 예상치(47.6p)를 하회하며 전월과 동일한 46.7p 유지⁵⁷⁾

» 미국의 11월 PMI 지수는 46.7p로 신규주문(48.3p, +2.8p)을 제외한 생산(48.5p, -1.9p), 고용(45.8p, -1.0p) 등 주요 지표들은 하락함

- ISM에 응답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조업 경기가 급격히 둔화됨에 따라 신규주문이 지연되어 제조 기업들이 재고수준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PMI(구매관리자 지수) 추이



56)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 매달 400개 이상의 구매, 공급 관련 기업의 중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함, 경제를 파악하는 선행지표로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 미만은 경기의 축소를 의미함

57) Trading Economics (2023.12.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2023.12.21 검색)

자료: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13) 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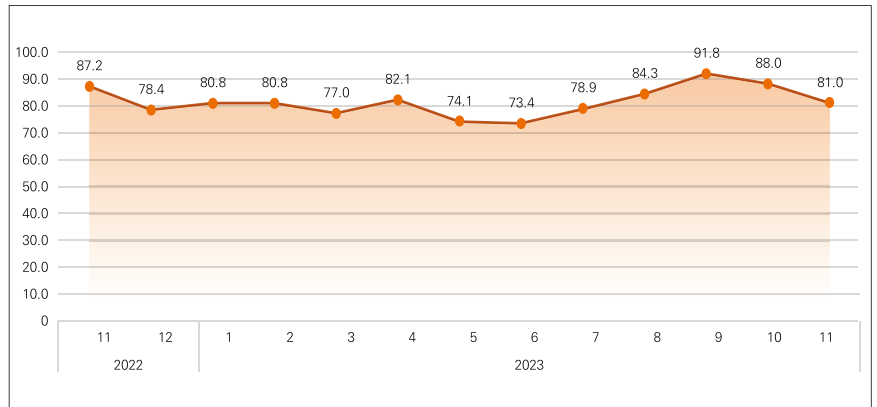
① '23년 11월 국제유가, Dubai, Brent, WTI 모두 전월 대비 하락

» 지난 6월 이후 반등하면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국제유가는 10월에 증가세가 꺾이면서 11월에는 배럴당 평균 81.0달러를 기록함

- 급등했던 유가가 긴축 장기화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3분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10월 다시 하락 전환됨
- 러-우 전쟁에 따른 제재, OPEC+의 감산연장 발표, 이-팔 전쟁,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 유가 증감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유가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단위: US\$/bbl,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86.3	77.2	80.4	82.1	78.5	83.4	75.0	75.0	80.5	86.5	93.3	89.8	83.6	-6.9	-3.1
Brent	90.9	81.3	83.9	83.5	79.2	83.4	75.7	75.0	80.2	85.1	92.6	88.7	82.0	-7.5	-9.7
WTI	84.4	76.5	78.2	76.9	73.4	79.4	71.6	70.3	76.0	81.3	89.4	85.5	77.4	-9.5	-8.3
평균	87.2	78.4	80.8	80.8	77.0	82.1	74.1	73.4	78.9	84.3	91.8	88.0	81.0	-7.9	-7.1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12.15.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② 파나마 운하 병목현상, 천연가스 시장에 영향 가능성⁵⁸⁾

» 기록적인 가뭄으로 파나마 운하의 병목현상이 심해지면서 미국 LNG의 아시아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파나마 운하청(ACP)은 올해 이어진 가뭄의 영향으로 일 최대 운하 통과 가능 선박 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임
- 반면, 아시아에서는 수요 감소 및 충분한 재고 확보로 도입 물량의 일부를 현물시장에 재판매하는 등 완화적인 공급여건이 이어지고 있음
- 세계 LNG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중국·일본이 12월 인도 예정인 선박의 일부를 역내 현물시장에 재판매하거나 인도 시점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임
- 다만, 아시아 국가들의 다음 동절기 LNG 확보 경쟁, 유럽의 재고비축 의무화 조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감소 등으로 동절기 이후 아시아와 유럽의 공급여건이 지금과는 다르게 타이트해질 가능성도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③ 베네수엘라, 석유 증산 및 인도 수출⁵⁹⁾⁶⁰⁾

»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석유 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이 10월 18일 한시적으로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 이후, 석유 트레이더들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해 적극적인 구매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 석유부는 11월 22일 생산량이 85만 b/d에 도달했으며, 이는 10월 생산량 78.6만b/d보다 8.1% 증가한 수치임

»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부문 제재 완화 이후, 인도 정유사들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도입하기 시작함

- 인도는 '20년 9월 이후 베네수엘라 원유를 도입한 바 없으나, 11월 2만 톤, 12월 39만 톤의 베네수엘라 원유가 선적되어 인도로 항할 것으로 알려짐
- S&P 전문가는 인도 정유사에게 있어 베네수엘라 원유 도입은 고유황 원유 정제를 통한 정제마진 개선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베네수엘라 원유 도입 재개로 고유황 원유에 있어 OPEC+에 대한 인도의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58)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11.22),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12.15.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12.15. 검색))

59)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11.23),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12.15.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12.15. 검색))

60)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11.30),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12.15.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12.15. 검색))

- 다만, 러시아 원유의 가격 경쟁력이 다른 유종 대비 여전히 높아 인도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이 러시아 우랄유 수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인도의 베네수엘라 원유 도입으로 베네수엘라 원유의 주요 고객이었던 중국 독립계 정유사의 원유 도입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베네수엘라가 중국에 원유 수출 시 적용하던 가격 할인 폭을 줄이거나 수출처를 다른 국가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④ OPEC+, 신규 회원국으로 브라질 영입 발표⁶¹⁾

- » OPEC+는 11월 30일 개최한 정기 총회에서 브라질을 신규 회원국으로 영입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함
- 이번 결정으로 '00년대 초, '21년 등 과거 OPEC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브라질은 '24년 1월 1일부터 OPEC+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됨
- '22년 브라질의 석유 생산량은 311만 b/d로 남미에서 1위, 미주 대륙에서 3위, 전체 산유국 중에서 9위 규모임
- 브라질의 OPEC+ 가입으로 OPEC+의 생산 정책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브라질 석유법(Oil Law)은 브라질의 석유와 가스 생산량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며, 생산량 증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라 실제 감산 참여 여부는 미지수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⑤ 미 에너지관리청(EIA), OPEC+ 감산에도 내년 유가 전망 하향⁶²⁾

- » EIA는 월간 단기 에너지전망 보고서에서 '24년 국제유가(Brent) 전망을 \$82.57/B로 전월 전망치 대비 \$10.7/B 하향 조정함
- 금번 하향 조정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분 반영 및 석유 수요 둔화 전망 등에 기인함
- 12월 1주 Brent 유가는 OPEC+의 자발적 감산 합의에 대한 실망감으로 \$76/B까지 하락했으며, 이

61)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12.01),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12.15. 검색)

62)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12.14),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12.15. 검색)

는 11월 1주 대비 \$10/B 낮은 수준임

- '24년 세계 석유 수요 전망은 1억 234만 b/d로 전월 대비 10만 b/d 하향 조정되었으며, 내년 석유 수요 증가분이 '23년 180만 b/d에서 '24년 130만 b/d로 둔화 될 것으로 예상함
- 다만, EIA는 국제유가 전망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OPEC+의 감산에 따른 타이트한 수급으로 '24년 1~3월에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세계 석유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나 OPEC+의 자발적 감산이 이를 상쇄하고 세계 석유 재고가 감소(80만 b/d)하면서 유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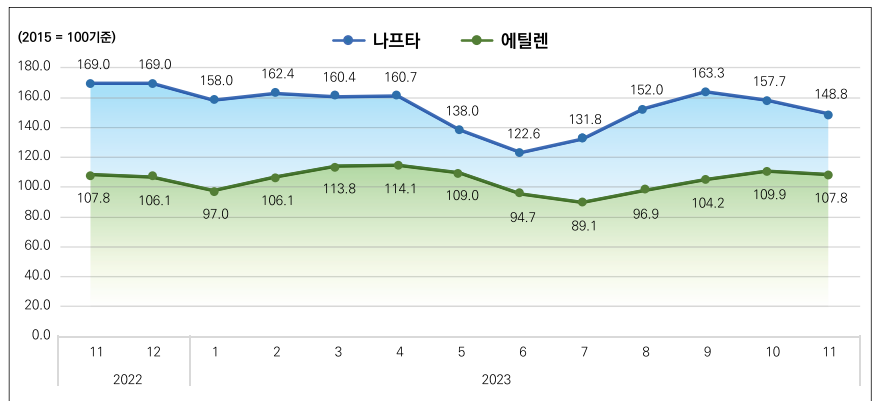
14) 화학공업생산품

① 나프타 및 에틸렌 11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하락

» 유가 하락으로 나프타 및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세를 보임

- 유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도 동반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유가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 생산자물가 추이는 유동적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69.0	169.0	158.0	162.4	160.4	160.7	138.0	122.6	131.8	152.0	163.3	157.7	148.8	-5.6	-11.9
에틸렌	107.8	106.1	97.0	106.1	113.8	114.1	109.0	94.7	89.1	96.9	104.2	109.9	107.8	-2.0	0.0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3.12.26.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3.12.26.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② 업황 부진,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 하락⁶³⁾⁶⁴⁾

» 실적 개선 신호탄을 쏘아 올린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올해 3분기 공장 가동률이 업황 부진으로 하락함

- 각 석유화학 업체들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누적 가동률은 LG화학,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이 모두 하락함
- 가동률은 LG화학 석유화학 사업이 75.3%로 전년 동기(84%) 대비 8.7%p 하락, 금호석유화학 합성고무 부문 및 합성수지 부문은 전년 동기(70%, 62%) 대비 각각 3%p, 8%p 하락, 한화솔루션 케미칼 사업 부문(여수·울산 평균)은 전년 동기(96.6%) 대비 1.3%p 하락함
- 석유화학 산업의 업황 부진이 가동률에 영향을 주었으며, 수요가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유가 상승, 수요 부진 등의 영향을 받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업계는 침체기를 겪고 있음
- 석유화학 업계는 일시적인 업황 부진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대응 전략 중 하나인 가동률 조절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공장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③ 국내 석유화학업계, 극심한 불황 속 내년 전망 불투명⁶⁵⁾⁶⁶⁾

»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4년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 결과, 석유화학산업은 내년 전망이 ‘흐림’으로 예상됨

- 대표 석유화학 기업들의 3분기 수익성이 대부분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4분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내년 중국 내 석유화학 제품생산량 증가와 전방 수요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석유화학 업황은 누적된 공급 과잉과 중국 자급률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 개선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운사이클 저점인 '19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불황기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석유화학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생산량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소재,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나서는 등 전통적인 석유화학산업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63) 글로벌이코노믹(2023.11.16.),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3111614292644317bdb7041ec_1/article.html(2023.12.15. 검색)

64) 한국석유화학협회(2023.11.16.),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863(2023.12.15. 검색)

65) 스트레이트뉴스(2023.12.10.),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270>(2023.12.15. 검색)

67) 한국석유화학협회(2023.12.11.),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879(2023.12.15. 검색)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최석우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3. 12. 28

편집 겸 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